중3 역사② · VI-1 국민 국가의 수립

나라의 제도를 고치려는데, 왜 나라를 지킬 힘도 필요했을까?

①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

예상 질문 24개 · 확인 문제 30개 · 정답과 해설 포함

>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 변화 다음에는 나라의 제도를 바꾸려는 개혁과 외세의 침략이 겹쳐 나타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항부터 대한 제국의 국권 피탈까지, '무엇을 바꾸려 했는가'와 '누가 나라의 일을 결정했는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전체 질문 지도

묶음	중심 질문	질문 번호
개항과 갈등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두고 왜 의견이 갈렸을까?	Q01~Q06
개혁의 전개	농민의 요구와 정부의 개혁은 어떻게 이어졌을까?	Q07~Q12
자주 국가의 모색	민중의 참여와 황제의 개혁은 무엇이 달랐을까?	Q13~Q17
국권 수호	권리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이어졌을까?	Q18~Q24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한눈에 보는 흐름

전체 사건과 대외 관계의 변화

1863~1910 · 사건과 대외 관계의 변화

1863~1884 → 1894~1895 → 1896~1899 → 1904~1910

개항과 갈등	개혁의 전개	자주 국가의 모색	국권 수호
1863 대원군 집권	**1894** 동학 농민 운동	**1896** 아관 파천	**1904** 러일 전쟁
1866 병인양요	청일 전쟁	독립 협회	**1905** 을사늑약
1871 신미양요	갑오개혁	**1897** 대한 제국	**1907** 헤이그 특사
1876 강화도 조약	**1895** 을미사변	**1898** 만민·관민 공동회	군대 해산
1882 임오군란		**1899** 대한국 국제	**1910** 강제 병합
1884 갑신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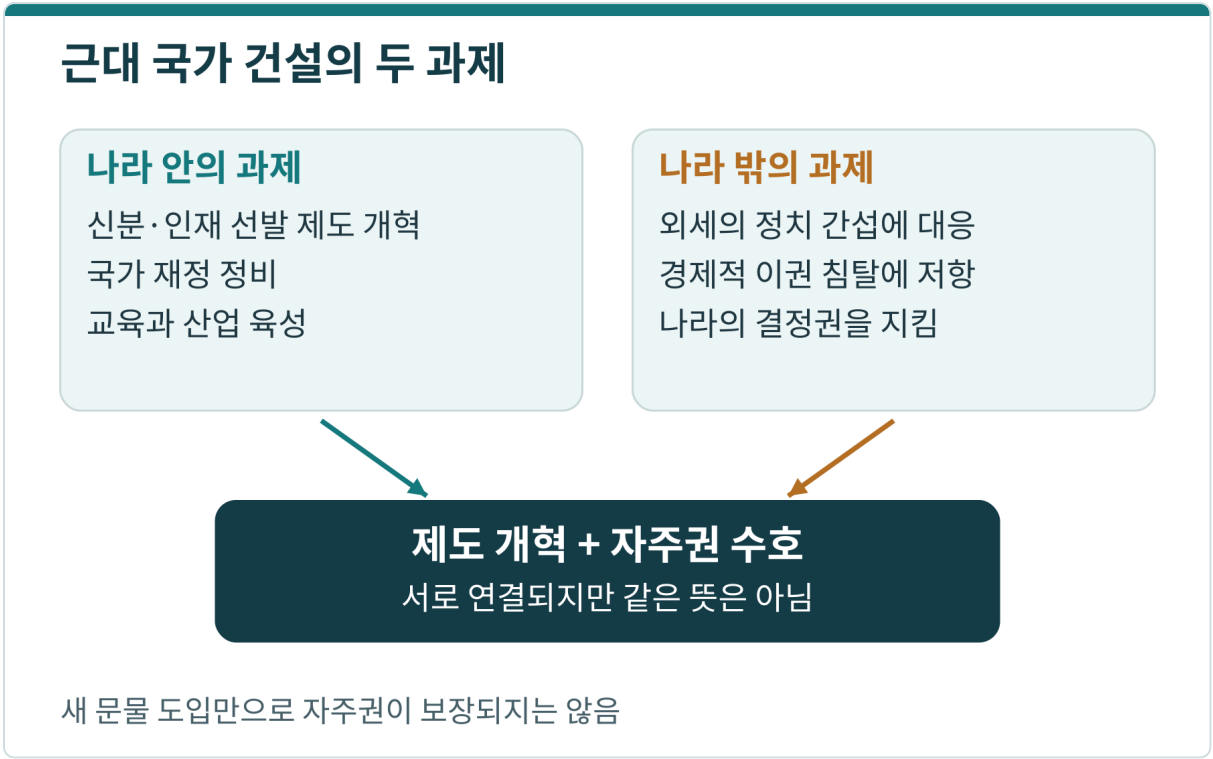
조선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 주요 흐름

1882~1894	1894~1895	1896~1904	1905~1910
청의 간섭	**일본의 간섭**	**러시아·일본 대립**	**일본의 독주**
임오군란	청일 전쟁	아관 파천	러일 전쟁 뒤

사건은 시기별로 묶었으며, 가로 간격은 실제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향력 띠는 주요 변화의 요약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향도 함께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개혁과 국권 수호의 흐름을, 아래에서는 조선·대한 제국에 간섭한 주요 외국 세력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그림 1 나라 안의 개혁과 나라 밖의 압력



제도를 바꾸는 일과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일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1 개항과 갈등

Q01 근대 국가를 세우려면 새 무기와 기계만 들여오면 되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와 구성원의 지위까지 바꾸어야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낯선 말

이권	광산 개발이나 철도 건설 등에서 얻는 경제적 권리·이익.
근대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공장·학교·신문 같은 새 문물이 퍼지며 정치·경제·사회 제도가 크게 바뀐 시대.
근대화	이러한 새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며 사회를 바꾸어 가는 것.
국권	나라가 스스로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다스릴 권리.
자주	다른 나라의 지시나 간섭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국민 국가	신분별로 나뉜 백성을 넘어, 같은 나라에 속한 국민이라는 공통의 자격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 국민의 동등한 권리와 정치 참여가 중요해졌지만, 처음부터 모든 국민이 같은 권리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설명 새 무기와 기계를 들여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분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거나, 관리가 백성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제도도 고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개혁에는 군사 기술뿐 아니라 인재 선발·재정·신분 질서의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이 조선의 항구를 열라고 위협하거나 조선의 정치에 간섭했습니다. 내부 제도를 고치려 해도 외국이 결정권을 빼앗으면 자주적인 개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대화와 자주권 수호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뜻은 아닙니다.** 또 이 시기에 근대화를 추진했다고 곧바로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민주 정치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구별할 것	뜻	예
근대적 제도 개혁	나라 안의 운영 방식과 사회 제도를 바꿈	신분제 폐지, 근대 학교 설립
자주권 수호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킴	외세의 이권 침탈 반대, 국권 수호 운동

시험 포인트 ‘제도를 고침’과 ‘외세의 간섭을 막음’을 구별하되, 한 사건에서 두 목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Q02 흥선 대원군은 나라 안에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 했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는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했습니다.**

낯선 말

흥선 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어린 고종을 대신해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왕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
통상	나라 사이의 상품 거래.
수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
척화비	서양 세력과 화친하지 않겠다는 뜻을 새긴 비석.

설명 세도 정치로 왕의 힘이 약해지고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흥선 대원군은 기존 통치 체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은 나라 안을 다스리는 과제였습니다. 이때 서양 세력의 침략과

통상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침략인 병인양요(1866), 미국의 침략인 신미양요(1871)를 겪은 뒤에는 척화비를 세워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강화도 일대에 외국 군대가 침입했다는 것이고, 상대국과 시기는 다릅니다. 흥선 대원군의 대외 정책만 보고 국내의 제도 정비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상대	시기	연결할 내용
병인양요	프랑스	1866	강화도 침입과 조선의 저항
신미양요	미국	1871	강화도 침입과 조선의 저항

→ 두 양요 뒤: 전국에 척화비 건립(통상 수교 거부 의지)

시험 포인트 흥선 대원군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통상 수교 거부'를 '국내 개혁도 전혀 하지 않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Q03 강화도 조약을 맺었으니 조선과 일본은 동등해진 것 아닌가요?

한 줄 답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조항에 조선의 권리를 제약하는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말

운요호 사건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부근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킨 사건.
강화도 조약	1876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 조선의 개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개항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항구를 여는 것.
영사 재판권(치외법권)	이 조약에서는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조선 관리가 아니라 일본 영사가 일본 법으로 재판하도록 한 권리.
해안 측량	바닷가의 지형과 수심 등을 조사하는 것.

설명 고종이 직접 정치를 맡은 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완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무력을 앞세워 조선에 통상 수교를 강요했고,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부산에 이어 원산과 인천도 개항했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와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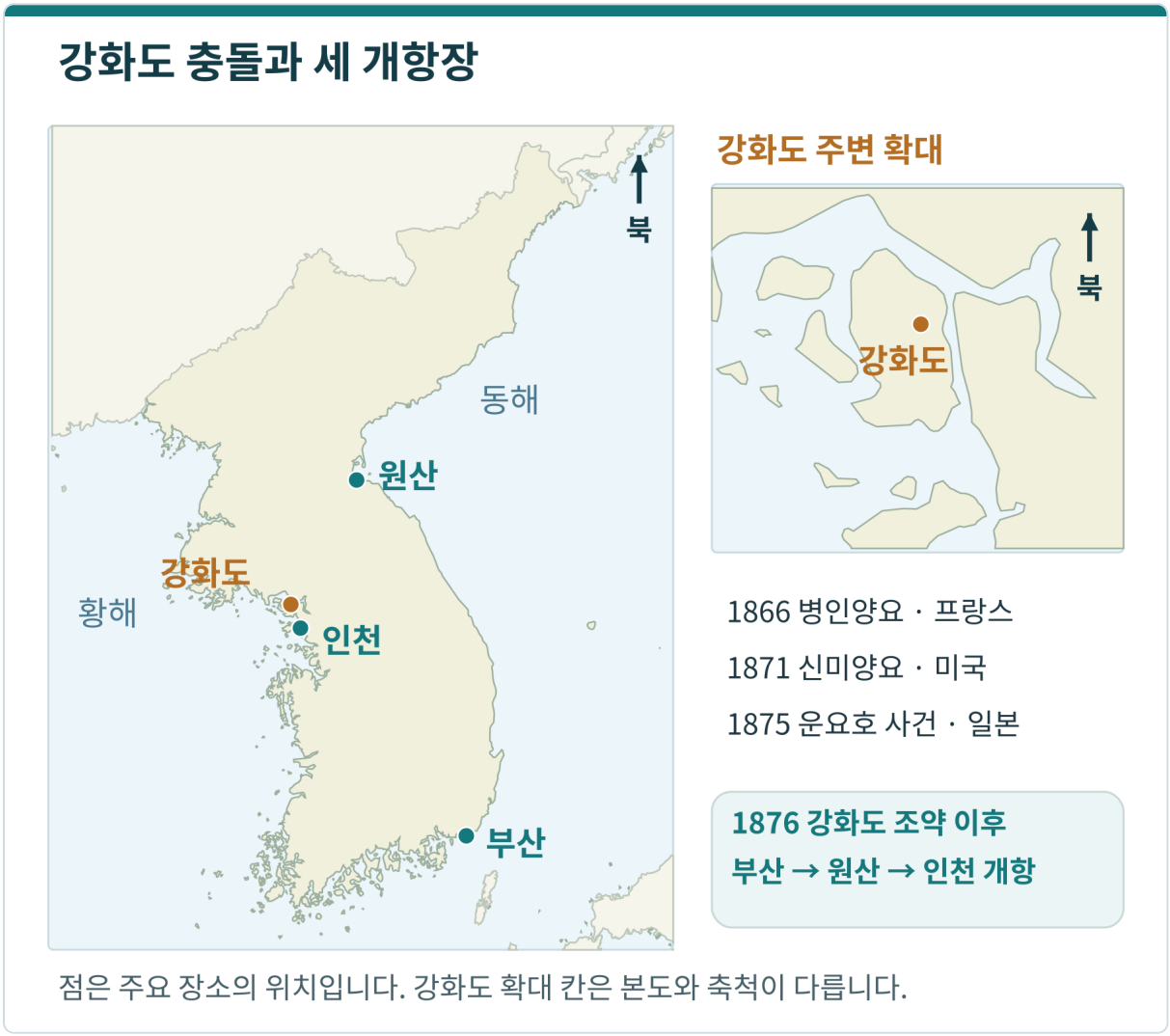
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일본에 영사 재판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인정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을 조선이 온전히 재판하지 못하고, 외국이 조선의 해안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한 문구가 있어도 실제 권리와 의무가 공평한지 따져야 합니다.**

조약의 표현과 실제 내용

내용	읽을 때 살펴볼 점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	일본은 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려 함
영사 재판권 인정	조선의 사법권을 제약함
일본의 해안 측량 허용	조선의 지리·군사 정보가 외국에 파악될 수 있음

강화도와 개항장



점은 주요 장소의 위치입니다. 강화도 확대 칸은 본도와 축척이 다릅니다.

강화도는 외국 군대와 충돌이 일어난 곳이고, 부산·원산·인천은 개항장입니다.

그림 2 개항장의 물자와 사람들



개항 뒤에는 외국 상품과 사람의 왕래가 늘었습니다. (상상도)

시험 포인트 ‘근대적 조약’이라는 말은 ‘공평한 조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사 재판권·해안 측량권은 불평등성을 보여 주는 보충 사례입니다.

Q04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는 무엇을 두고 다투었나요?

한 줄 답 **외국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할지, 기존 질서와 나라를 위태롭게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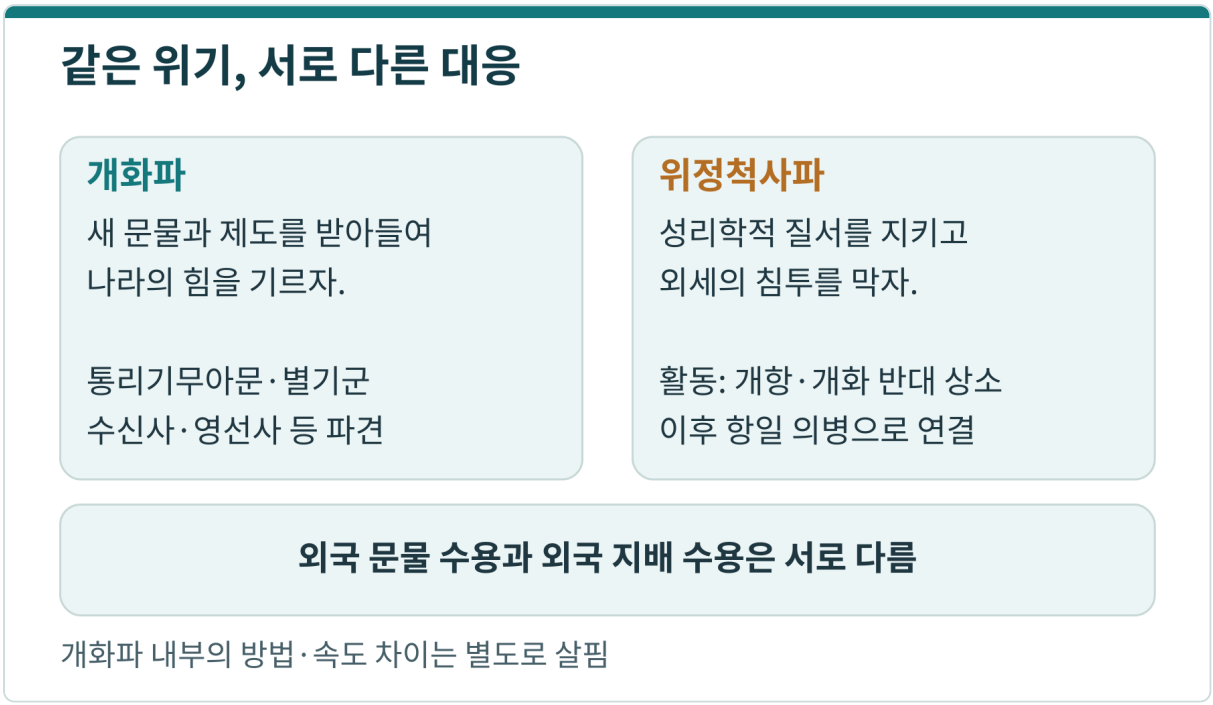
낯선 말

상소	신하나 유생 등이 임금에게 글로 의견을 올리는 것.
김홍집	일본의 문물을 살펴본 개화파 관료로, 훗날 갑오개혁을 추진한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개화파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키려 한 정치 세력.
위정척사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문물·사상 등을 배척하려는 주장.
통리기무아문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별기군	신식 무기와 훈련을 도입한 군대.
사절단	다른 나라에 공식 임무를 띠고 보내는 사람들의 모임.

설명 김옥균·박영효·김홍집 등 개화사상을 배운 인물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의 힘을 기르려 했습니다. 정부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만들었으며 외국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기술을 알아야 필요한 것을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정척사파는 서양 사상과 일본의 침투가 기존 질서와 나라를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개항과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다만 개화파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다고 모두 외국의 지배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위정척사파 역시 이후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림 3 개화와 위정척사의 판단 차이



서로 무엇을 위험으로 보았는지 비교하면 주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개화파 안에서도 개혁의 속도와 방법은 같지 않았습니다.

갈래	보낸 곳·활동 장소	이름	한 일
기구	조선 중앙 정부	통리기무아문	개화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함
군대	조선	별기군	신식 무기와 훈련 방식을 도입함
사절단	일본	수신사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일본 문물을 살핌
사절단	일본	조사 시찰단	근대 제도와 산업·군사 시설을 살핌
사절단	청	영선사	무기 제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함
사절단	미국	보빙사	미국의 사절 파견에 답례하고 문물을 살핌

시험 포인트 통리기무아문·별기군·사절단은 개화 정책에, 개항 반대 상소는 위정척사 운동에 연결합니다.

Q05 새 군대를 만들었는데 왜 기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나요?

한 줄 답 **신식 군대 육성 과정에서 구식 군인들이 차별받고 생계까지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군란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일으킨 집단적인 반란.
봉기	사람들이 부당한 지배나 대우에 맞서 집단으로 일어나는 것.
임오군란	1882년 구식 군인들의 불만에서 시작되어 도시 하층민도 참여한 군인들의 집단 반란.
구식 군인	새로운 방식으로 편성한 군대와 대비되는 기존 군대의 군인.
내정 간섭	다른 나라가 한 나라의 정치·행정에 끼어드는 것.

설명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는 자원과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구식 군인들의 대우는 나빠졌습니다. 구식 군인들은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 무기를 반대했다'는 한 가지 이유보다 **군대 개편에서 소외되고 생활이 위협받았다**는 배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군란 진압에 개입한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 간섭을 강화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었지만 결과는 외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배경과 결과를 바꾸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배경	별기군과 구식 군인의 차별, 구식 군인의 생활 어려움, 개화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
사건	구식 군인과 도시 하층민의 봉기
결과	청의 군대 주둔과 내정 간섭 강화

별기군과 구식 군인



신식 군대 육성과 기존 군인의 소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시험 포인트 임오군란의 연도는 1882년입니다. 청의 간섭 강화는 군란 이후의 결과로 연결합니다.

Q06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려던 갑신정변은 왜 일본의 도움을 받았나요?

한 줄 답 **급진 개화파가 정권을 빠르게 바꾸는 데 필요한 군사·재정 지원을 일본에서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주를 내세웠지만 방법은 일본에 기댔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낯선 말

갑신정변	1884년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정권을 잡고 개혁하려 한 사건.
급진	변화의 속도나 폭을 크게 하려는 것.
정변	정치 세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바꾸는 사건.
문벌	집안의 지위와 혈통에 따른 사회적 배경.
재정	나라의 수입과 지출.

구분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대표 인물	김홍집·김윤식 등	김옥균·박영효 등
청과의 관계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개혁하려 함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함
개혁의 속도	기존 질서를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	정치·사회 제도의 빠르고 큰 변화

설명 임오군란 뒤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개혁 추진은 어려워졌습니다. 김옥균 등은 일본의 지원 약속을 믿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문벌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으며, 국가 재정을 한 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머물던 청군이 개입하면서 개화 정권은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점과 일본의 힘에 의존했다는 점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자주적인 목표가 있다고 모든 방법까지 자주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림 4 갑신정변의 목표·방법·결과



개혁의 목표, 지원을 얻은 방법, 정권이 무너진 원인을 나누어 봅니다.

시험 포인트 김옥균·급진 개화파·1884·3일·청의 무력 개입을 한 사건으로 연결합니다.

2 개혁의 전개

Q07 동학 농민 운동은 종교를 퍼뜨리려고 일어난 운동인가요?

한 줄 답 **동학의 영향이 있었지만, 관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투에 맞서 사회를 바꾸려는 농민들의 요구가 핵심이었습니다.**

낯선 말

전봉준	고부 봉기와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끈 지도자.
고부·백산	오늘날 전북 정읍·부안 일대에 있는 동학 농민 운동 초기의 주요 장소.
동학	최제우가 창시한 종교.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수탈	권력 등을 이용해 남의 재산이나 노동의 성과를 빼앗는 것.
탐관오리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관리.
외세	다른 나라의 정치적·군사적 세력.

설명 개항 뒤에도 무거운 세금과 관리의 수탈은 계속되었습니다. 외국 상인의 경제적 침투까지 겹치면서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동학이 내세운 평등사상과 외세 배척은 이런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 등이 군수의 횡포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문제를 수습하러 온 관리가 오히려 농민을 탄압하자, 전봉준 등이 농민군을 모아 백산에서 크게 봉기하였습니다(1차 봉기).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종교의 이름만 기억하면 생활의 어려움과 정치·사회 개혁 요구를 놓치게 됩니다.

시험 포인트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은 **안으로 관리의 수탈, 밖으로 외세의 침투**입니다.

Q08 전주 화약을 맺은 뒤 농민군은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요?

한 줄 답 **정부와 충돌을 잠시 멈춘 뒤에도 집강소를 통해 폐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낯선 말

화약(和約)	싸움을 멈추자는 약속. 불을 붙이면 터지는 화약(火藥)과는 다른 말.
전주 화약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과 정부가 맺은 합의.
집강소	농민군이 전라도 여러 지역에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추진한 기구.
폐정	잘못된 정치와 행정 운영.
폐정 개혁	백성을 괴롭히는 잘못된 정치를 고치는 것.

설명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청에 군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군이 들어오자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오자, 농민군과 정부는 외세가 끼어들 구실을 없애려고 싸움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맺은 합의가 전주 화약입니다. 농민군과 정부의 군사 충돌이 일단 멈추었다고 해서 농민들의 개혁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집강소는 그 요구를 지역에서 실행하는 통로였습니다.

농민들은 탐관오리를 벌하고, 세금의 부당한 부담을 줄이며,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사회를 요구했습니다. 동학의 평등사상에 영향을 받은 농민군은 사람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질서를 바꾸려는 요구도 내세웠습니다. 이런 내용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지배 질서를 바꾸려는 요구였습니다. 집강소를 정부가 농민군을 탄압하려고 만든 기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말	무엇인가?	역할
전주 화약	정부와 농민군의 합의	충돌을 일단 멈춤
집강소	농민군의 개혁 기구	폐정 개혁을 추진함

시험 포인트 집강소는 **전주 화약 뒤·전라도 여러 지역·폐정 개혁**으로 연결합니다.

Q09 정부와 화약을 맺은 농민군이 왜 다시 봉기했나요?

한 줄 답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과 전쟁을 벌이는 등 조선 침략을 확대하자 일본을 몰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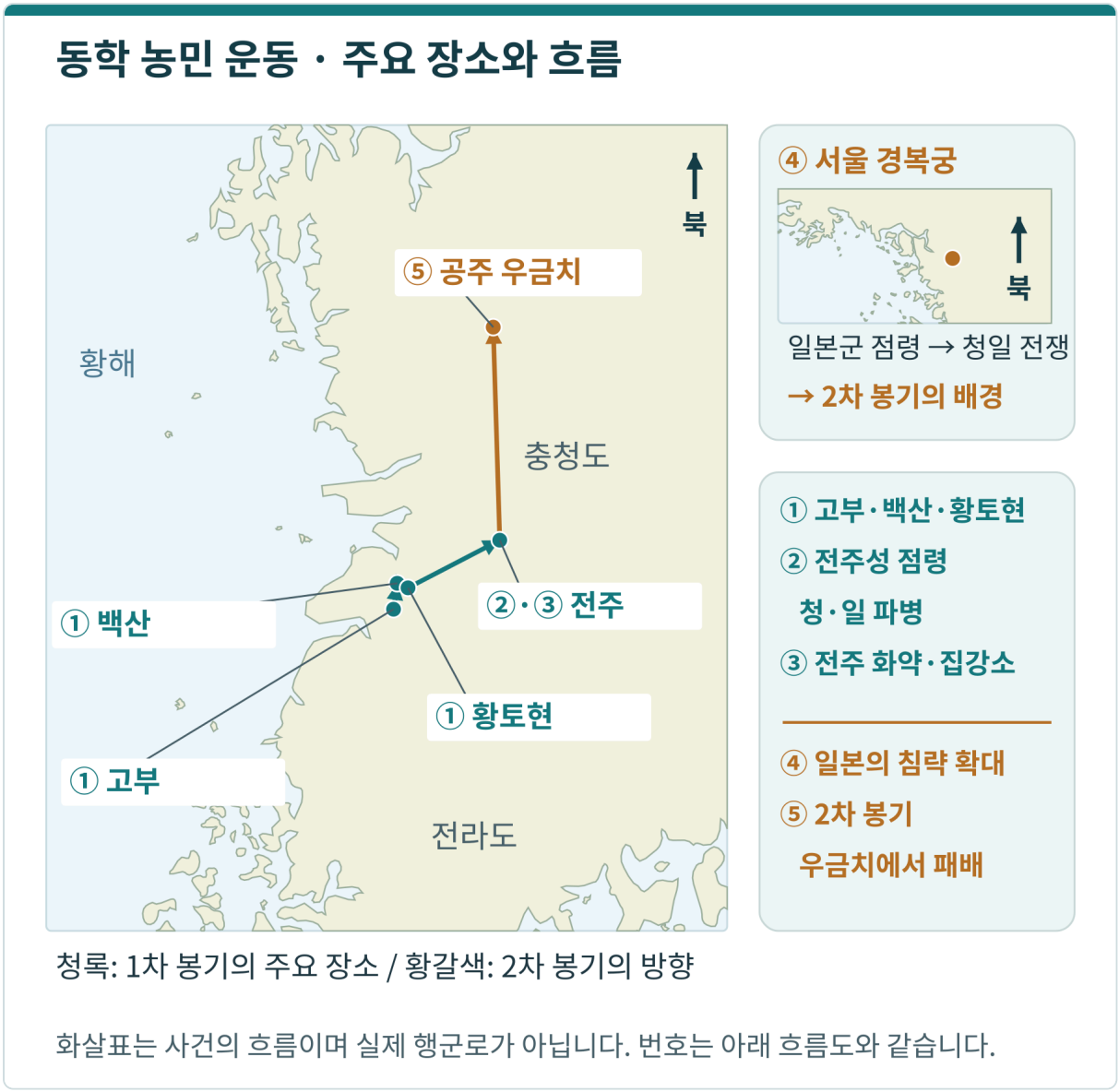
낯선 말

청일 전쟁	조선 등을 둘러싼 영향력을 놓고 1894년에 시작된 청과 일본의 전쟁.
2차 봉기(재봉기)	전주 화약 뒤 일본의 침략에 맞서 농민군이 다시 일어난 것.
우금치	2차 봉기에 나선 농민군이 일본군·관군과 싸우다 패한 공주 지역의 고개.

설명 화약 뒤에도 일본군은 물러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한 뒤 청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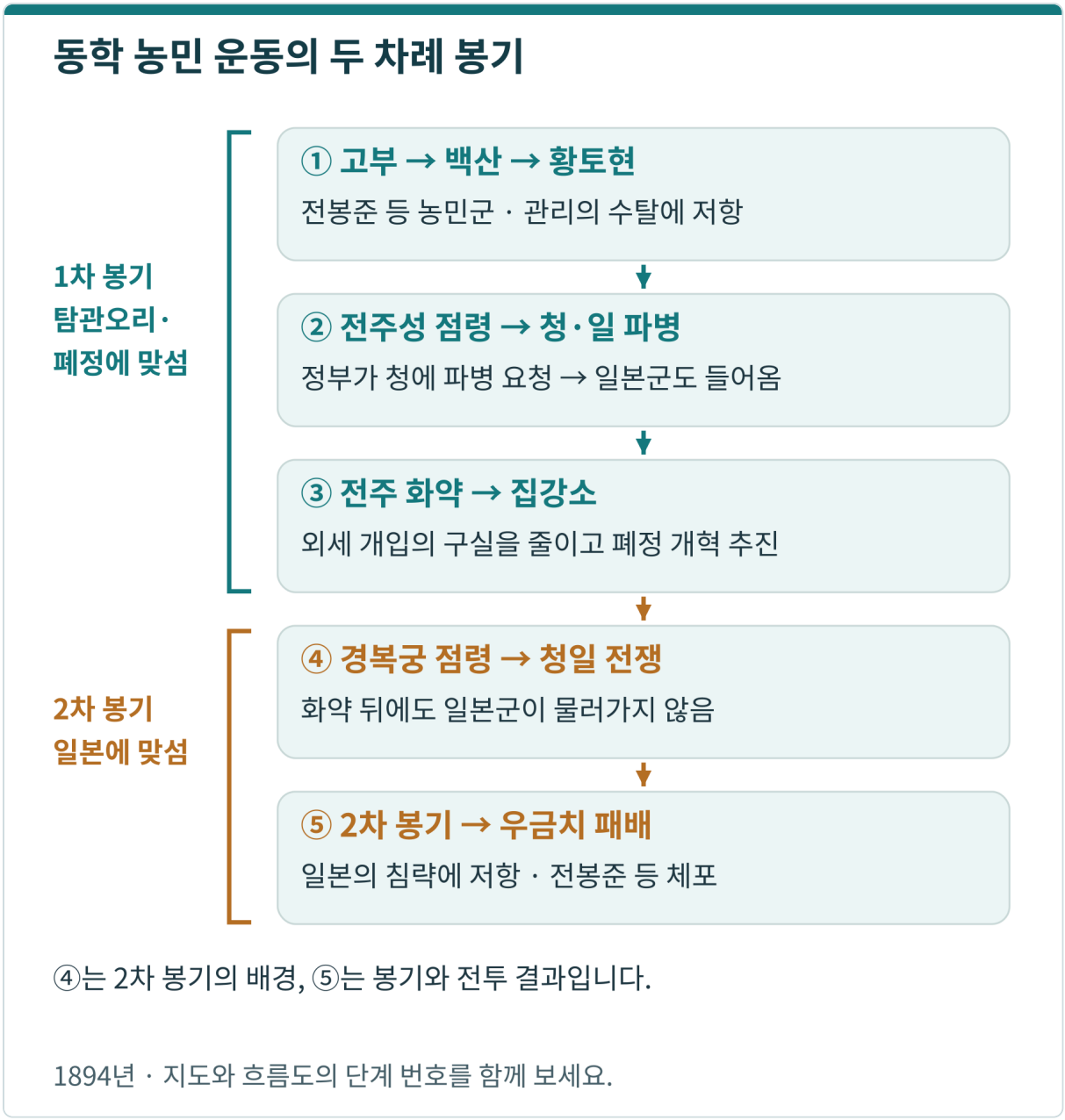
농민군은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맞서 2차 봉기(재봉기)에 나섰습니다. 1차 봉기에서 관리의 횡포와 폐정 개혁이 두드러졌다면, 2차 봉기에서는 일본을 몰아내려는 목표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패하고 전봉준 등 지도자가 체포되면서 운동은 끝났습니다. 패배했다는 결과와 반외세·사회 개혁의 요구가 있었다는 의미를 함께 봅니다.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장소



청록은 1차 봉기의 주요 장소 연결, 황갈색은 2차 봉기 때 우금치로 향한 흐름입니다. 번호는 아래 흐름도의 단계와 같습니다.

그림 5 동학 농민 운동의 흐름과 두 과제



전주 화약과 집강소 시기 뒤에 일본의 침략에 맞선 2차 봉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봉기의 목표를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주 화약 → 집강소 → 일본 침략 확대에 맞선 2차 봉기 → 우금치 패배**의 흐름을 구별합니다.

Q10 일본의 간섭 속에서 시작된 갑오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개혁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추진 과정에서 일본의 간섭을 받았지만, 신분제 폐지 등 근대적인 개혁 내용도 있었습니다.**

낯선 말

내각	여러 행정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 국가의 정치를 맡는 기구.
홍범 14조	고종이 발표한 열네 조항의 국가 개혁 방향.
재가	배우자를 잃은 여성이 다시 혼인하는 것.
갑오개혁	1894년부터 추진된 정치·경제·사회 제도 개혁.
군국기무처	갑오개혁 초기에 주요 개혁안을 심의한 기구.
과거제	시험으로 관리를 뽑던 전통적인 제도.
탁지아문	국가 재정 업무를 맡도록 한 관청.
왕실 재정	왕실에서 사용하는 돈과 재산의 운영.

설명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한 뒤 김홍집을 중심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이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기구와 내각이 바뀌었고, 고종은 개혁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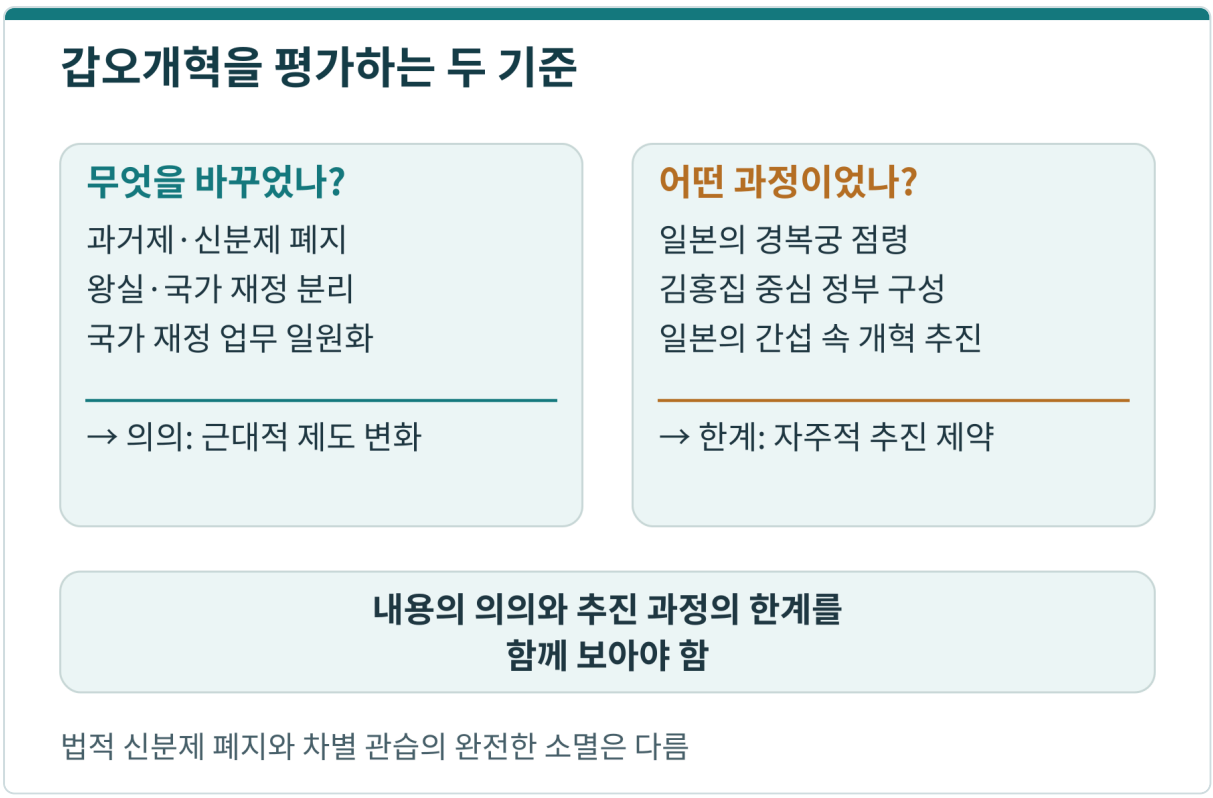
갑오개혁에는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과 동학 농민군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벌과 신분 차별을 고치려던 주장·요구는 법적 신분제 폐지와 이어집니다.

개혁 내용에는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의 분리 등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돈과 왕실의 돈을 구분하면 나라 전체의 예산을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제를 없앤 것은 큰 변화지만 오랫동안 남아 있던 차별 관습이 그날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갑오개혁에서 달라진 것

분야	주요 변화	변화의 뜻
정치	과거제 폐지, 의정부에 국정 업무 집중	전통적인 인재 선발·정치 운영을 바꿈
재정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 분리, 탁지아문으로 재정 업무 일원화	국가의 수입·지출을 정리함
사회	문벌·신분제와 노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출생 신분에 따른 법적 차별과 여성의 혼인 제약을 고치려 함

그림 6 개혁을 평가하는 두 기준



'어떤 제도를 바꾸었나'와 '누구의 간섭 속에서 추진했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갑오개혁은 **근대적 제도 개혁이라는 의의와 일본의 간섭이라는 한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Q11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은 이름이 비슷한데 같은 사건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을미사변은 명성 황후가 시해된 사건이고, 을미개혁은 그 뒤 추진된 일련의 개혁입니다.**

낯선 말

명성 황후	고종의 왕비.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
을미사변	1895년 일본 세력이 경복궁을 습격해 명성 황후를 시해한 사건.
시해	왕이나 왕비 등을 죽이는 것.
을미개혁	1895년 을미사변 뒤 새 내각이 추진한 개혁.
단발령	남성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하도록 한 명령.
태양력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를 기준으로 한 달력.

설명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프랑스·독일이 일본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자 일본은 압력을 받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종은 이를 보고 러시아의 힘을 이용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조선이 러시아와 가까워지자 일본은 영향력을 되찾으려고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내각이 다시 구성되어 단발령, 태양력 채택 등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는 정책 하나만 따로 보면 생활 변화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왕비 시해 사건과 일본의 간섭이 겹쳐 있었습니다. 유생들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구별	을미사변	을미개혁
성격	왕비 시해 사건	제도·생활 관련 개혁
대표 내용	명성 황후 시해	단발령, 태양력 채택
함께 살필 결과	일본에 대한 반감 확대	강압적 추진 등에 대한 반발

구분	을미사변
배경	일본의 간섭 강화 → 러시아 등의 견제 → 조선이 러시아와 가까워짐
사건	일본 세력이 명성 황후를 시해함(1895)
결과	일본에 대한 반감 확대, 단발령과 함께 을미의병의 배경이 됨

시험 포인트 ‘명성 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같은 항목으로 쓰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의병 봉기에 함께 영향을 주었습니다.

Q12 아관 파천으로 고종이 안전해졌으면 나라의 자주성도 회복된 것 아닌가요?

한 줄 답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한 것과 나라가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난 것은 다릅니다.**

낯선 말

아관 파천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
공사관	외국에 설치한 외교 대표 기관.
열강	당시 강한 군사·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나라들.

설명 을미사변 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일본의 감시가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진행 중이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고종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습니다. 다른 외국의 시설과 힘에 의지하는 동안 국가의 위상이 손상되고 새로운 간섭이 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관 파천을 곧바로 완전한 자주권 회복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구분	아관 파천
배경	을미사변 뒤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낌
사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김(1896)
결과	김홍집 내각 붕괴, 진행 중이던 개혁 중단,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

시험 포인트 **1896·러시아 공사관·김홍집 내각 붕괴·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를 연결합니다.

3 자주 국가의 모색

Q13 독립 협회는 독립문을 세우는 모임이었나요?

한 줄 답 **독립문 건립뿐 아니라 신문·토론회·집회를 통해 자주 의식과 민중의 정치 참여를 높이려 했습니다.**

낯선 말

서재필	갑신정변에 참여한 뒤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 독립신문과 독립 협회 활동을 이끈 개화파 인물.
민의	국민의 의견.
의회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논의하는 기구.
독립 협회	1896년 서재필 등이 조직하여 자주독립과 개혁을 추구한 단체.
만민 공동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나라의 문제를 논의한 집회.
관민 공동회	정부 관리와 민중이 함께 참여한 집회.
헌의 6조	관민 공동회에서 결의하여 고종에게 건의한 여섯 조항.

설명 아관 파천 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나라가 스스로 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했고, 개화파 관료들과 독립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독립문 건립은 자주독립 의식을 보여 주는 상징적 활동이었습니다.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어 낸 자리 부근에 세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1945년 광복을 기념해 세운 문은 아닙니다.

독립 협회는 토론회와 연설회로 정치·사회 문제를 알리고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했습니다. 정부 대신도 참여한 관민 공동회에서는 헌의 6조를 결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고 정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건축 사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그림 7 나라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상상도)

활동	의미
독립문 건립	자주독립 의식을 드러냄
토론회·연설회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임
만민 공동회	민중이 나라의 문제에 의견을 내고 이권 침탈에 반대함
관민 공동회	관리와 민중이 함께 개혁안을 논의하고 헌의 6조를 결의함

헌의 6조에는 **외국에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이 힘을 합해 황제의 권한을 굳건히 하자, 국가 재정을 맡은 관청에서 수입·지출을 한데 관리하고 예산·결산을 공개하자**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독립 협회는 황제를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황제 아래에서 의회를 두어 민의를 반영하려 했습니다. 외세에 기대지 않는 정치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독립 협회는 의회를 두어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곧바로 대통령을 뽑자는 뜻과는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구별합니다. 헌의 6조는 관민 공동회와 연결합니다.

Q14 조선을 대한 제국으로 바꾸면 외국의 간섭이 저절로 사라지나요?

한 줄 답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간섭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황제국 선포는 자주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려는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낯선 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뒤 머문 궁궐.
전제 정치(전제 군주제)	군주에게 국가 운영의 권한이 집중된 정치 체제.
대한 제국	고종이 1897년 선포한 국가의 이름.
황제	제국의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
연호	군주가 정하여 해를 세는 데 쓰는 이름.
대한국 국제	1899년 반포한 대한 제국의 국가 운영 기본 규정.

설명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뒤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연호는 광무로 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다른 황제국과 대등한 자주 국가라는 위상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이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전제 정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국제'는 오늘날 흔히 쓰는 '국제 관계'의 국제와 다른 말로, 나라의 제도를 뜻합니다. 황제권 강화는 독립 협회의 민중 참여 확대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한 제국을 선포했다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공화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겹친 두 흐름

1896 독립 협회 → **1897 대한 제국** → **1898 만민·관민 공동회** → **1899 대한국 국제**

구분	독립 협회	대한 제국(고종)
누가	지식인·관료와 민중	황제와 정부
바란 정치	의회를 두어 민의를 반영	황제에게 권한 집중(전제 정치)
대표 장면	만민 공동회·관민 공동회·헌의 6조	대한국 국제·광무개혁
같은 점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려 함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려 함

독립 협회는 1898년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1897·고종·황제·광무·대한 제국 / 1899·대한국 국제·황제권 강화**를 연결합니다.

Q15 광무개혁에서 토지를 조사한 이유는 농민에게 땅을 똑같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인가요?

한 줄 답 **주된 목적은 토지와 소유 관계를 파악해 재정을 확충하고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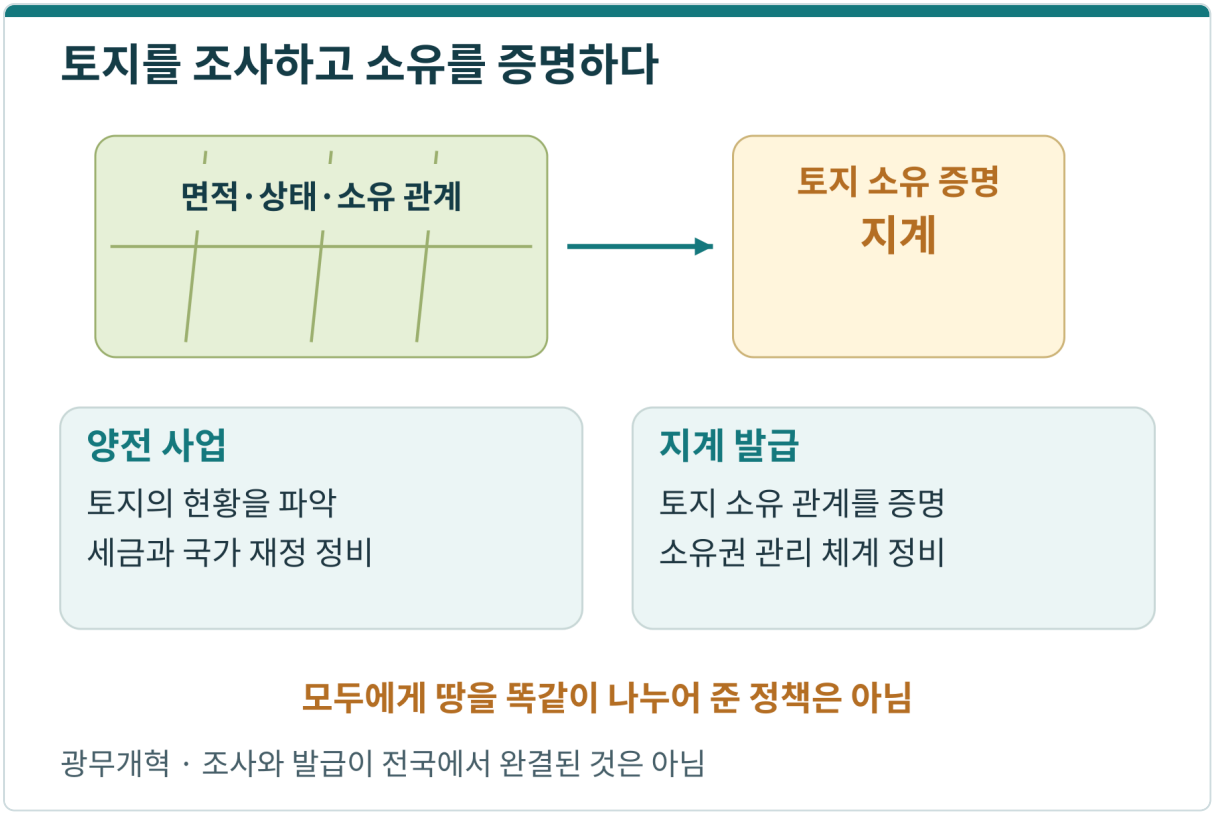
낯선 말

광무개혁	대한 제국이 황제권을 바탕으로 추진한 근대화 개혁.
구본신참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제도를 참고한다는 개혁 원칙.
양전 사업	토지의 면적과 상태 등을 조사하는 사업.
지계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
상공업	상업과 공업을 함께 이르는 말.

설명 국가는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토지에서 거두는 세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소유를 증명할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대한 제국은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조사와 발급 사업이 전국에서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광무개혁에는 상공업 진흥,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도 포함되었습니다. 산업과 교육을 키워 나라의 힘을 기르려 한 것입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말 때문에 새 제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황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 8 토지 조사와 지계 발급의 뜻



토지의 현황 파악과 소유 증명은 토지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광무개혁의 토지 관련 정책은 **양전·지계**, 경제·교육 정책은 **상공업 진흥·학교·유학생**으로 묶습니다.

Q16 갑신정변·동학 농민 운동·갑오개혁·광무개혁은 모두 같은 개혁인가요?

한 줄 답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다는 연결점이 있지만, 주도 세력과 방법, 외세와의 관계가 달랐습니다.**

낯선 말

주도 세력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이끄는 사람이나 집단.
개혁 정강	개혁하려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

설명 여러 사건에 비슷한 개혁 내용이 나온다고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출생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자는 생각은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에도 나타납니다. 농민들도 부당한 차별과 수탈을 없애려 했고, 갑오개혁에서는 법적으로 신분제를 폐지했습니다. **주장한 것, 실행하려 한 것, 법적으로 바꾼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광무개혁은 황제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이라는 큰 이름 아래에서도 누가 어떤 권한을 바탕으로 추진했는지를 살피면 차이가 보입니다.

네 가지 개혁 움직임 비교

사건·정책	주도	알아볼 단서	신분 문제	함께 볼 한계·결과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	김옥균, 문벌 폐지 주장, 재정 일원화 주장	문벌 폐지를 **주장**	일본 지원에 의존, 청의 개입으로 실패
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군	전봉준, 집강소, 폐정 개혁, 반외세	신분 차별 개선을 **요구**	우금치 패배와 진압
갑오개혁	개혁 정부	군국기무처, 과거제·신분제 폐지	법으로 신분제를 **폐지**	일본의 간섭 속에 추진
광무개혁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	구본신참, 양전·지계, 산업·교육 진흥	—	황제 중심 체제, 열강의 간섭

시험 포인트 같은 개혁 내용이 보이면 **인물·기구·연도·추진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Q17 넓혀 보기 중국과 일본도 근대화를 했는데 왜 정치 모습은 달랐나요?

한 줄 답 **새 기술을 들여오는 과정과 정치 체제를 바꾸는 과정이 각 나라에서 다르게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막부	일본에서 쇼군을 중심으로 무사들이 정치를 이끌던 정부.
변법자강 운동	청에서 입헌 군주제 등을 지향하며 정치·교육 제도를 고치려 한 운동.
양무운동	청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 기술 등을 받아들여 부강해지려 한 운동.
입헌 군주제	헌법에 따라 군주의 권한과 국가 운영 방식을 정하는 정치 체제.
공화정	세습 군주를 두지 않는 정치 체제.
메이지 유신	일본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국왕 중심으로 근대 개혁을 추진한 변화.
신해혁명	1911년 중국에서 일어나 청 왕조를 무너뜨리고 공화정 수립으로 이어진 혁명.

설명 청에서는 서양 기술을 들여오는 양무운동이 추진되었지만 군주 중심의 낡은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정치 개혁인 변법자강 운동도 시도되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이후 혁명 세력이 성장했고 신해혁명 뒤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1912).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1868)으로 막부가 무너지고 국왕 중심의 근대 국가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신분 제도와 세금 제도를 바꾸고 산업을 육성했지만, 민중이 요구한 자유와 권리를 모두 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1889년 헌법을 제정해 국왕 중심의 입헌 군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헌법이 있어도 국왕의 권한이 강했고 민중의 자유·권리는 제약받았습니다. 새 기술을 도입하고 공장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민주 정치의 실현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의 개혁과 비교하면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과 정치 제도를 바꾸는 일이 어떻게 달랐는지 보입니다.

살펴볼 점	조선·대한 제국	청·중국	일본
새 기술·문물의 수용	별기군·사절단, 산업·교육 육성	양무운동으로 서양 기술 도입	메이지 유신으로 산업·교육 육성
정치·사회 제도 개혁	갑신정변·갑오개혁·광무개혁	변법자강 운동, 이후 혁명 운동	신분·토지·조세 제도 개편, 헌법 제정
결과·정치 체제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국권 피탈	신해혁명 뒤 중화민국 수립(1912)	국왕 중심의 입헌 군주 국가

세 나라가 똑같은 순서로 발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의 도입과 정치 체제의 변화를 나누어 비교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 질문은 동아시아 비교를 위한 연결 내용입니다. **근대화가 곧 공화정이나 민주화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4 국권 수호

Q18 을사늑약 때 이미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한 줄 답 **1905년에는 외교권을 빼앗겼고, 1910년에 일제가 대한 제국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국권 침탈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낯선 말

러일 전쟁	만주와 한반도 등을 둘러싼 영향력을 놓고 1904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을사늑약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
늑약	강제로 맺은 조약.
외교권	다른 나라와 조약·협상 등 외교 관계를 스스로 처리할 권리.
통감부	을사늑약 뒤 일본이 한국에 설치한 통치·간섭 기구.

설명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한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권을 빼앗고, 이듬해인 1906년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어 대한 제국의 외교와 정치에 간섭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제약되면 나라의 자주성은 크게 훼손됩니다.

하지만 이때 곧바로 대한 제국의 모든 기관이 사라지고 국호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사법권·경찰권 박탈 등을 거쳐 1910년 강제 병합에 이르렀습니다. 단계가 있었다는 말은 초기 침탈이 가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림 9 국권을 빼앗긴 과정



1905년의 외교권 박탈과 1910년의 강제 병합을 구별합니다. 사이의 조치들도 나라의 자주적 결정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연도	사건	빼앗긴 것·약해진 권한
1905	을사늑약	외교권
1907	고종 강제 퇴위·군대 해산	황제의 지위와 국가의 군사적 기반
1909	사법권 박탈	스스로 재판할 권한
1910	경찰권 박탈	스스로 치안을 운영할 권한
1910	강제 병합	나라의 주권 전체

시험 포인트 **1905·을사늑약·외교권 박탈 → 1906·통감부 설치 / 1910·강제 병합·국권 피탈**을 나눕니다.

Q19 을사늑약에 사람들은 어떻게 맞섰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한 줄 답 **사람들은 언론·외교·의거 등으로 저항했고,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도 해산했습니다.**

낯선 말

의거	옳은 일을 위해 결연히 일으킨 행동.
헤이그 특사	고종이 보낸 이준·이상설·이위종 세 사람.
이토 히로부미	대한 제국의 외교와 정치에 간섭한 초대 통감.
하얼빈	중국 동북부에 있는 도시.
특사	특별한 임무를 맡겨 보내는 사절.
헤이그	1907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 네덜란드의 도시.
퇴위	군주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군대 해산	군대 조직을 없애는 것.

연도	인물	활동	저항 방식
1905	장지연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을사늑약을 비판	언론
1907	고종, 이준·이상설·이위종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 파견	외교
1909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	의거

일본의 대응과 저항의 확대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 퇴위** → **군대 해산** → **해산 군인의 의병 합류**

설명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은 언론·외교·의거 등 여러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성신문의 장지연은 논설로 늑약을 비판했고, 고종은 강제로 빼앗긴 외교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특사 파견을 구실로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같은 해 대한 제국의 군대도 해산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공식 군대가 없어졌지만, 군인들이 모두 저항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해산된 군인 중 일부가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의 무기 사용과 전투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군대 해체와 민간의 저항 확대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안중근은 의병으로 활동하며 국권 수호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1909년 하얼빈에서 일본의 침략을 이끈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표의 세 저항은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1905~1909년에 이어진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 → 해산 군인의 의병 합류**를 각각 연결합니다.

Q20 의병은 양반 유생들만 싸운 군대인가요?

한 줄 답 **초기에는 유생의 역할이 컸지만, 점차 농민과 평민 의병장, 해산 군인 등 여러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낯선 말

만주	중국 동북부 지역.
연해주	한반도 북동쪽과 접한 러시아의 동해 연안 지역.
의병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운 사람들과 그 무장 조직.
유생	유학을 공부한 사람.

설명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유생들이 주도했습니다. 을사늑약 뒤 일어난 을사의병에서는 농민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신돌석처럼 평민 출신 의병장도 활동했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 뒤 정미의병에는 해산 군인이 합류하여 전투력과 조직력이 높아졌습니다.

의병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지만 부대 사이에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 어려웠고 일본의 강한 군사적 탄압도 받았습니다. 1908년에는 여러 의병 부대가 서울로 진격하려는 서울 진공 작전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병은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여 이후 독립군 활동의 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탄압받았다는 사실이 저항의 역사 전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림 10 의병 참여층의 확대



시기가 바뀔 때 앞선 참여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계층의 참여가 더해지는 흐름입니다.

여러 계층이 함께한 의병 부대



유생·농민과 해산 군인이 힘을 모아 의병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상상도)

시험 포인트 **평민 의병장 신돌석, 1907년 해산 군인 합류, 국외 독립군으로의 연결**을 구별해 기억합니다.

Q21 학교를 세우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 어떻게 국권 수호가 되나요?

한 줄 답 **교육과 산업을 통해 나라를 지탱할 인재와 경제력을 길러 국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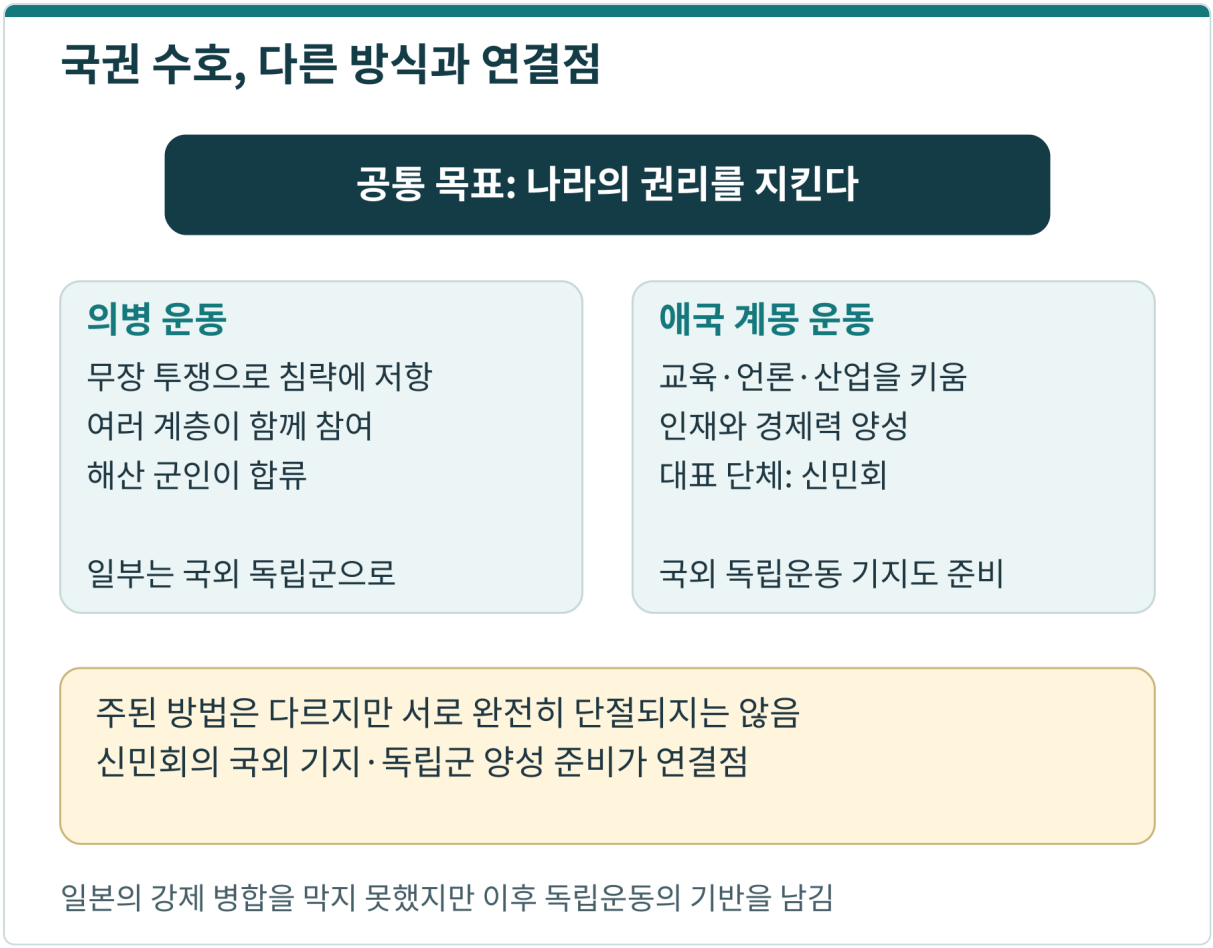
낯선 말

안창호	교육과 실력 양성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 했던 독립운동가.
양기탁	언론 활동과 신민회 조직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애국 계몽 운동	교육·언론·산업 등을 통해 국민을 깨우치고 실력을 길러 국권을 지키려 한 운동.
실력 양성	지식·경제력·조직력 등 나라를 지탱할 힘을 기르는 것.
신민회	1907년 안창호·양기탁 등이 조직한 비밀 단체.
민족 자본	한국인이 마련하고 운영하는 사업 자금과 경제적 기반.

설명 의병이 무장 투쟁을 벌이는 동안 지식인과 관료 등은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발행하며 산업을 키우려 했습니다.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도 민중을 깨우치고 국권 수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이 국제 정세와 사회 문제를 알아야 나라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민회는 대성학교·오산학교를 통한 교육과 자기(도자기) 회사와 서점인 태극 서관 등의 운영을 통해 민족 자본, 곧 한국인이 마련하고 운영하는 경제적 기반을 키우려 했습니다.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고 독립군을 기르는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애국 계몽 운동을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자는 운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장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민회는 조직이 드러나 1911년 해체되었습니다.

그림 11 국권을 지키려는 두 활동 방식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은 국권 수호라는 목표를 공유했지만 주된 방법이 달랐습니다.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 준비처럼 두 방식이 이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병은 **무장 투쟁**, 애국 계몽 운동은 **교육·언론·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이 대표 단서입니다.

Q22 나라가 빌린 돈을 왜 국민이 모아서 갚으려 했나요?

한 줄 답 **일본에 진 빚이 경제적 종속과 간섭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국채	국가가 진 빚.
국채 보상 운동	1907년 국민의 성금으로 일본에 진 국가의 빚을 갚으려 한 운동.
성금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돈.
경제적 종속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크게 의존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

설명 일본은 시설 개선 등을 내세워 대한 제국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쓰게 했습니다. 빚은 단지 돈을 갚아야 한다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이 커지면 일본이 경제와 정치에 간섭할 여지도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빚을 갚으려 한 이유입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에 여러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술·담배를 줄여 아낀 돈을 내거나 비녀·가락지를 모았고,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은 운동을 알려 참여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통감부의 탄압과 일본의 방해 등으로 목표한 국채 상환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목적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 국권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사람들은 아낀 돈과 비녀·가락지 등을 내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상상도)

시험 포인트 **1907·국민 성금·일본에 진 빚 상환·경제적 자주권**을 연결합니다.

Q23 독도는 왜 이 시기의 국권 침탈과 함께 배우나요?

한 줄 답 **일본이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 일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 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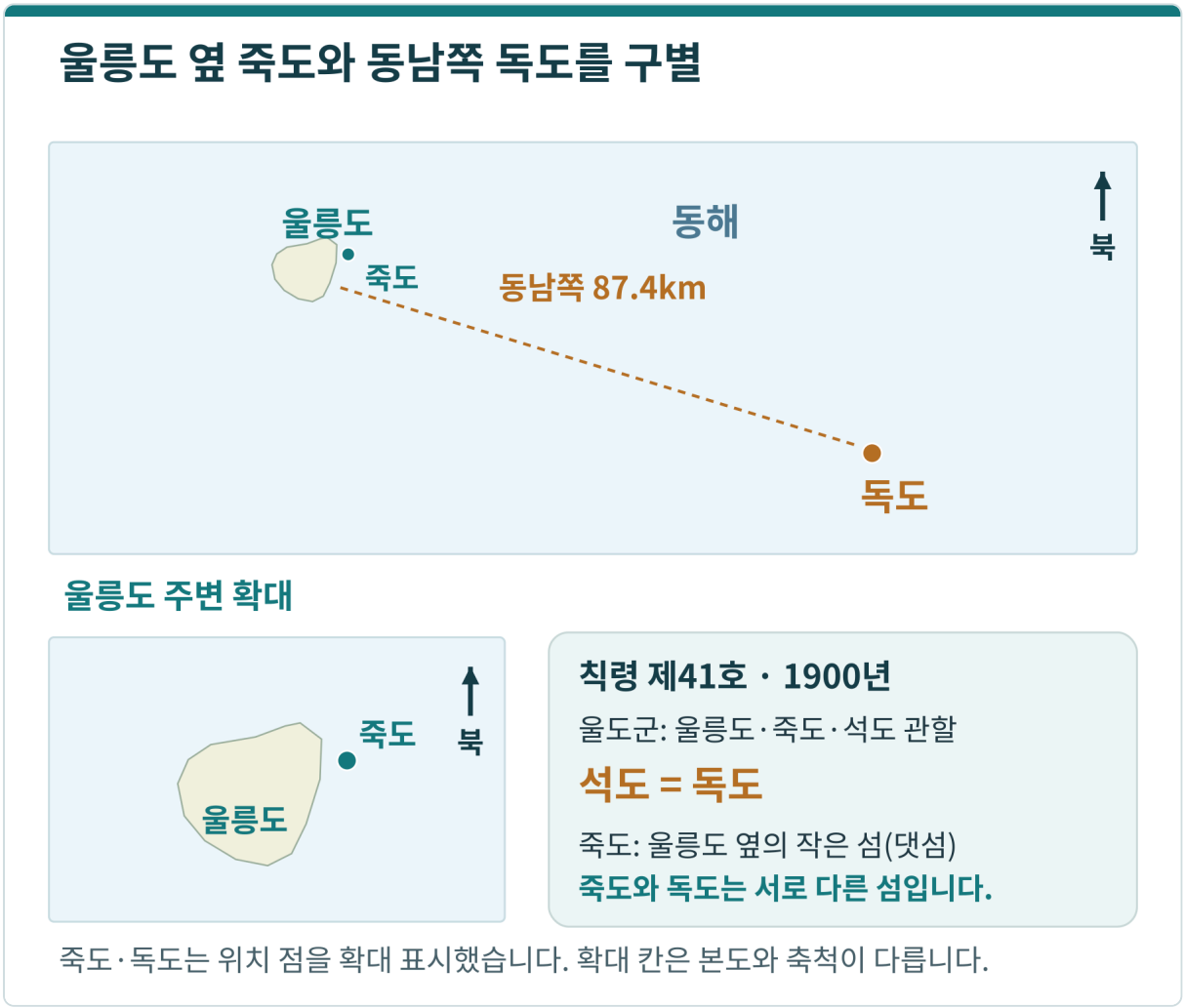
죽도	울릉도 바로 옆의 작은 섬(댓섬). 독도와는 다른 섬입니다.
석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가리킨 이름.

울도군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여 만든 행정 구역.
영토 편입	어떤 땅을 자신의 국가 영역에 넣는 것.
칙령	황제가 내리는 명령.
관할	행정 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범위.
태정관	메이지 초기 일본의 최고 국가 기관.

설명 대한 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의 관할을 정하며 울릉도·죽도·석도(독도)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대한 제국의 행정적 관리 범위에 들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일본의 1905년 불법 편입보다 앞선 조치입니다.

1877년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료들과 달리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습니다. 자료를 볼 때는 **누가, 언제, 어느 섬의 소속과 관리에 관해 기록했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본이 편입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정당한 영유권을 처음 얻었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울릉도·죽도·독도의 위치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에 있고, 독도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칙령 제41호의 석도는 독도를 가리킵니다.

그림 12 독도 관련 기록의 시간 순서



일본의 최고 기관이 내린 판단, 대한 제국의 행정 조치, 일본의 침탈 행위를 구분한 개념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1900·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 1905·러일 전쟁 중 일본의 불법 편입**을 구별합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은 일본 측 기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Q24 결국 국권을 빼앗겼다면 앞선 개혁과 저항은 모두 의미가 없나요?

한 줄 답 **국권을 지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제도 변화와 정치의식 성장, 이후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남겼습니다.**

낯선 말

성과	노력으로 이루거나 남긴 결과.
한계	목표를 이루는 데 미치지 못한 점.

설명 갑오개혁에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변화, 독립 협회 활동을 통한 민중의 정치 참여, 학교와 언론을 통한 의식의 성장은 국권 피탈이라는 결과 한 가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의병의 국외 이동과 신민회의 독립운동 준비는 다음 시기의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개혁이 성공했다거나 외세의 간섭이 가벼웠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바꾸었는지,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다음 시기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나누어 보면 과장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권 피탈 뒤 국내외에서 이어진 항일 민족 운동을 살펴봅니다.

성과와 한계를 함께 보기

움직임	남긴 변화·의미	함께 볼 한계
근대적 개혁	신분·재정·교육 등 제도 변화	외세의 간섭, 추진 과정의 제약
독립 협회	자주 의식과 민중의 정치 참여 확대	요구한 개혁이 모두 실현되지는 못함
의병·애국 계몽 운동	국권 수호 노력, 이후 독립운동의 기반	일본의 침략과 강제 병합을 막지 못함

시험 포인트 결과가 실패라고 의미까지 '없음'으로, 일부 성과가 있다고 결과까지 '완전한 성공'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름이 비슷한 사건 구별

구별할 짝	앞의 말	뒤의 말
갑신정변 / 갑오개혁	1884·급진 개화파·3일	1894·개혁 정부·신분제 폐지
을미사변 / 을미개혁	명성 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태양력 채택 등 개혁
만민 공동회 / 관민 공동회	민중의 집회	정부 관리와 민중 참여·헌의 6조
을사늑약 / 강제 병합	1905·외교권 박탈	1910·국권 피탈
지계 / 국채	토지 소유 증명 문서	국가가 진 빚

중요한 연도와 사건

연도	사건
1863	고종 즉위, 흥선 대원군의 정치 주도
1866	병인양요
1871	신미양요, 척화비 전국 건립
1875	운요호 사건
1876	강화도 조약, 부산 개항, 첫 수신사 파견
1880	원산 개항
1881	조사 시찰단·영선사 파견, 별기군 창설
1882	임오군란
1883	인천 개항, 보빙사 파견
1884	갑신정변
1894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시작, 갑오개혁 시작
1895	청일 전쟁에서 일본 승리, 을미사변·을미개혁, 을미의병
1896	아관 파천, 독립 협회 설립

연도	사건
1897	대한 제국 수립
1898	만민 공동회·관민 공동회
1899	대한국 국제 반포
1900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1904	러일 전쟁 시작
1905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을사늑약, 을사의병
1906	통감부 설치
1907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 정미의병, 신민회 조직, 국채 보상 운동
1908	의병의 서울 진공 작전
1909	안중근 의거, 사법권 박탈
1910	경찰권 박탈, 국권 피탈

확인 문제

객관식은 정답 하나를 고르시오. OX는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시오.

1. 개항과 갈등

01 객관식

다음 두 활동을 가장 알맞게 구별한 것은?

(가) 출생 신분에 따른 관직 진출 제한을 고치려 했다.
(나) 외국의 광산 개발권 요구에 반대했다.

① (가)는 외교권 박탈, (나)는 신분제 강화이다.
② (가)는 제도 개혁, (나)는 외세의 이권 침탈에 대한 저항이다.
③ (가)는 군대 해산, (나)는 과거제 폐지이다.
④ 두 활동 모두 외국의 간섭을 늘리려는 활동이다.
⑤ 두 활동 모두 개혁과는 관계없는 생활 풍습이다.

02 객관식

흥선 대원군 시기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 제도를 전혀 고치지 않고 서양과 자유로운 통상을 추진했다.
② 병인양요에서 미국군을, 신미양요에서 프랑스군을 상대했다.
③ 서양 세력의 침입 전에 대한 제국을 선포했다.
④ 국내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했다.
⑤ 척화비를 세워 외국에 항구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03 객관식

어떤 조약에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적었지만,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일본 영사가 자국민을 재판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이 자료의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표현만 보지 말고 조선의 사법권을 제약하는 실제 조항도 살펴야 한다.

② 자주국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모든 조항이 공평했다.

③ 외국과 맺은 조약이므로 개항과 관계없다.

④ 조선 정부가 일본 전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⑤ 이 조약을 맺은 즉시 대한 제국이 강제로 병합되었다.

04 객관식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뒤 추진했다.

② 일본의 군대 해산에 맞서 평민 의병장이 일으켰다.

③ 성공하여 조선에서 외국의 간섭이 완전히 사라졌다.

④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고종이 주도했다.

⑤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청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했다.

05 단답형

개항 후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 기구의 이름을 쓰시오.

조건 군대나 사절단의 이름은 쓰지 말 것.

답 _____

06 OX

임오군란을 진압하는 데 개입한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답 _____

07 OX

위정척사파는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개항 반대 상소를 올렸다.

답

2. 개혁의 전개

08 객관식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을 바르게 묶은 것은?

①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과 봉급 미지급

②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국왕의 신변 위협

③ 관리의 수탈과 외국 상인의 경제적 침투

④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

⑤ 을사늑약 체결과 대한 제국 군대 해산

09 객관식

1894년 농민군이 정부와 합의한 뒤에도 일본은 군대를 물리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했다. 이후 농민군의 움직임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 새 군사 기술을 배웠다.

② 관민 공동회를 열어 헌의 6조를 결의했다.

③ 황제 중심의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을 추진했다.

④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⑤ 일본을 몰아내려 2차 봉기에 나섰다.

10 객관식

갑오개혁을 평가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본이 간섭했으므로 신분제 폐지라는 변화도 없었다.

② 근대적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일본의 간섭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③ 법적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사회의 차별 관습도 즉시 모두 사라졌다.

④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를 전국 모든 농민에게 똑같은 넓이의 땅과 함께 주었다.

⑤ 전통적인 과거제를 강화하여 인재를 뽑았다.

11 객관식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바르게 구별한 것은?

① 을미사변은 토지 조사, 을미개혁은 집회 결의이다.

② 둘 다 외교권을 빼앗은 하나의 조약을 가리킨다.

③ 을미사변은 과거제 폐지, 을미개혁은 군대 해산이다.

④ 을미사변은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을미개혁은 단발령·태양력 채택 등의 개혁이다.

⑤ 을미사변은 민중의 토론회, 을미개혁은 공화국 수립이다.

12 단답형

전주 화약 뒤 농민군이 전라도 여러 지역에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추진한 기구의 이름을 쓰시오.

답 _____

13 OX

아관 파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이며, 그 뒤 열강의 이권 침탈은 완전히 사라졌다.

답 _____

14 짧은 서술형

정부의 돈을 왕실에서 쓰는 돈과 구분하고, 국가 재정 업무를 한 관청에서 맡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

조건 국가의 수입·지출 관리와 연결할 것.

답 _____

_____

_____

15 짧은 서술형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와 2차 봉기에서 각각 두드러진 저항 대상을 한 가지씩 쓰시오.

조건 ㉠ 1차 봉기: (대상), ㉡ 2차 봉기: (대상)의 형식으로 쓸 것.

답 _____

_____

_____

3. 자주 국가의 모색

16 객관식

다음 활동이 보여 주는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중이 공개 집회에 참여해 외국의 이권 요구를 비판하고, 나라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① 민중의 정치 참여와 자주 의식이 확대되었다.

② 황제에게 모든 정치 권한이 집중되었다.

③ 군국기무처가 중앙의 개혁 업무를 주도하였다.

④ 농민군이 지방에서 집강소를 운영하였다.

⑤ 급진 개화파가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17 객관식

대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종은 대한 제국 수립 뒤에도 왕의 칭호를 그대로 유지했다.

②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③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뒤 대한국 국제를 통해 황제권을 강화했다.

④ 대한국 국제를 통해 황제권을 줄이고 의회에 권한을 집중했다.

⑤ 집강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18 객관식

광무개혁의 성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과거제 폐지안을 심의했다.

② 집강소를 통해 농민군의 폐정 개혁을 추진했다.

③ 관민 공동회를 열어 헌의 6조를 결의했다.

④ 을미사변 뒤 내각이 단발령과 태양력 채택을 추진했다.

⑤ 황제 중심의 체제를 바탕으로 산업과 교육 등에서 근대화를 추진했다.

19 객관식

청·중국과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무운동은 청 왕조를 없애고 공화국을 세우려 한 혁명이었다.

② 일본은 메이지 유신 뒤 국왕 중심의 근대 국가를 건설했다.

③ 신해혁명 뒤 중국에는 막부 중심의 정부가 세워졌다.

④ 일본은 메이지 유신 뒤에도 막부의 통치를 유지했다.

⑤ 청은 변법자강 운동으로 입헌 군주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20 단답형

대한 제국이 토지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의 이름을 쓰시오.

답 _____

21 단답형

정부 관리와 민중이 함께 참여한 집회에서 결의해 고종에게 건의한 여섯 조항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답 _____

22 순서 배열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로 쓰시오.

(가) 갑신정변 (나) 임오군란 (다) 갑오개혁 (라) 아관 파천

답 _____

4. 국권 수호

23 객관식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대한 제국의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 분배했다.

② 고종의 강제 퇴위가 강화도 조약보다 먼저 일어났다.

③ 1910년 강제 병합 뒤 처음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④ 외교권 박탈 뒤 고종 강제 퇴위·군대 해산 등을 거쳐 강제 병합에 이르렀다.

⑤ 국권 침탈은 외교권과는 관계없이 하루 동안 모두 이루어졌다.

24 객관식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권 수호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무장 투쟁과 실력 양성 등 주된 방식이 달랐다.

② 의병은 교육만 하고 애국 계몽 운동은 학교 설립을 금지했다.

③ 두 운동은 모두 일본의 강제 병합을 환영했다.

④ 평민과 해산 군인은 의병에 참여하지 못했다.

⑤ 신민회는 국외 독립운동 준비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25 객관식

독도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와 성격에 맞게 해석한 것은?

① 1905년 일본의 불법 편입 뒤에야 대한 제국은 처음으로 1900년의 칙령을 내렸다.

② 일본의 태정관 지령은 1910년 한국 정부가 작성했다.

③ 대한 제국의 독도 관할을 명시한 행정 조치는 일본의 1905년 불법 편입보다 앞섰다.

④ 일본의 편입 선언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영유 관계가 없어진다.

⑤ 이 시기의 독도 문제는 러일 전쟁이나 국권 침탈과 전혀 관련이 없다.

26 단답형

1907년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일본에 진 국가의 빚을 갚으려 한 운동의 이름을 쓰시오.

답

27 OX

헤이그 특사 파견은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 한 외교적 저항이었다.

답

28 OX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은 강제 병합을 막지 못했으므로 이후 독립운동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답

29 짧은 서술형

1907년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뒤 일부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였다. 이 변화가 의병에 준 영향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조건 군인들의 훈련 경험과 전투 능력을 연결할 것.

답 _____

_____

_____

30 짧은 서술형

한 단체가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지원했다. 이러한 활동을 국권 수호와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조건 교육과 경제력의 역할을 모두 넣을 것.

답 _____

_____

_____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01	②	16	①
02	④	17	③
03	①	18	⑤
04	⑤	19	②
05	통리기무아문	20	지계
06	O	21	헌의 6조
07	X	22	(나) → (가) → (다) → (라)
08	③	23	④
09	⑤	24	①
10	②	25	③
11	④	26	국채 보상 운동
12	집강소	27	O
13	X	28	X
14	왕실이 나랏돈을 따로 쓰지 못하게 하고, 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한곳에서 파악해 관리할 수 있다.	29	훈련과 전투 경험을 가진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여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15	㉠ 수탈하는 관리(탐관오리), ㉡ 침략을 확대하는 일본	30	교육으로 인재를 기르고 산업을 통해 경제력을 키워 국권을 지킬 힘을 마련하려 했다.

정답과 해설

1. 개항과 갈등

01 정답 ②

① 오답 (가)는 국내 신분 제도의 문제이며 외교권 박탈이 아니다. (나)도 신분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② 정답 **국내의 차별을 고치는 것과 외국의 경제적 권리 요구에 저항하는 것을 정확히 구별했다.**

③ 오답 두 자료에는 군대 해산이나 과거제 폐지를 직접 가리키는 내용이 없다.

④ 오답 외국의 간섭 확대를 원한 활동이 아니다.

⑤ 오답 정치·사회 제도 및 대외 자주성과 관련된 활동이다.

관련 질문 Q01

02 정답 ④

① 오답 국내 제도를 정비했고 서양과의 통상 수교는 거부했다.

② 오답 병인양요의 상대는 프랑스, 신미양요의 상대는 미국이다.

③ 오답 대한 제국은 1897년에 선포되었다.

④ 정답 **국내 개혁과 대외 통상 수교 거부는 함께 나타났다.**

⑤ 오답 척화비는 서양과 화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 질문 Q02

03 정답 ①

① 정답 **영사 재판권은 조선의 권리 행사를 제약했다. 자주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조약 전체가 평등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② 오답 하나의 표현이 모든 조항의 공평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③ 오답 자료는 조선의 개항으로 이어진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다.

④ 오답 일본 영사가 자국민을 재판하는 것이지 조선이 일본 전체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⑤ 오답 1876년의 강화도 조약과 1910년의 강제 병합은 다른 사건이다.

관련 질문 Q03

04 정답 ⑤

① 오답 전주성 점령은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이다.

② 오답 갑신정변은 1884년 급진 개화파가 일으켰고, 군대 해산은 1907년이다.

③ 오답 개화 정권은 3일 만에 무너졌다.

④ 오답 아관 파천은 1896년으로 갑신정변보다 뒤이다.

⑤ 정답 **급진 개화파의 목표는 자주적 근대 국가였지만 일본에 의존했고, 조선에 머물던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관련 질문 Q06

05 정답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은 개화 정책 추진 기구이다. 별기군은 군대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관련 질문 Q04

06 정답 O

1882년 군란 진압에 개입한 청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관련 질문 Q05

07 정답 X

위정척사파는 기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 문물·사상 등을 배척하려 했다.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하려 했다는 부분이 틀렸다.

관련 질문 Q04

2. 개혁의 전개

08 정답 ③

① 오답 임오군란의 배경이다.
② 오답 아관 파천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 정답 **관리의 수탈과 외국 상인의 경제적 침투가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
④ 오답 을미의병의 배경이다.
⑤ 오답 을사의병·정미의병과 관련된 배경이다.

관련 질문 Q07

09 정답 ⑤

① 오답 개화 정책의 내용이다.
② 오답 독립 협회의 활동이다.
③ 오답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이다.
④ 오답 아관 파천은 1896년의 일이다.
⑤ 정답 **일본의 침략 확대에 맞서 농민군이 2차 봉기에 나섰다.**

관련 질문 Q09

10 정답 ②

① 오답 일본의 간섭과 신분제 폐지는 함께 살펴야 할 별개의 사실이다.
② 정답 **개혁 내용의 의의와 추진 과정의 한계를 함께 평가했다.**
③ 오답 법·제도의 변화와 생활 속 관습의 변화 속도는 같지 않다.
④ 오답 갑오개혁 내용이 아니며, 광무개혁도 모든 농민에게 똑같은 토지를 나누어 준 정책이 아니다.
⑤ 오답 갑오개혁에서 과거제는 폐지되었다.

관련 질문 Q10

11 정답 ④

① 오답 토지 조사·집회 결의와는 다르다.
② 오답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은 을사늑약이다.
③ 오답 과거제 폐지는 갑오개혁, 군대 해산은 1907년의 일이다.
④ 정답 **사변은 시해 사건이고 개혁은 제도·생활 관련 조치로 구별된다.**
⑤ 오답 민중의 토론회나 공화국 수립을 가리키지 않는다.

관련 질문 Q11

12 정답 **집강소**

집강소는 농민군이 폐정 개혁을 추진한 기구이다. 전주 화약은 정부와 농민군의 합의이지 기구 이름이 아니다.

관련 질문 Q08

13 정답 **X**

거처를 옮긴 것은 맞지만 열강의 이권 침탈은 오히려 심해졌다. 왕의 신변 보호와 국가의 자주권 회복은 구별해야 한다.

관련 질문 Q12

14 정답 **왕실이 나랏돈을 따로 쓰지 못하게 하고, 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한곳에서 파악해 관리할 수 있다.**

필수 요소: 국가 재정을 왕실의 자의적 사용과 구분함 + 국가의 수입·지출을 한곳에서 파악하여 관리함. 같은 뜻의 표현은 인정한다. 관청 이름만 쓰거나 재정을 한 관청에 맡긴다는 조치를 그대로 옮기면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질문 Q10

15 정답 **㉠ 수탈하는 관리(탐관오리), ㉡ 침략을 확대하는 일본**

각 요소를 따로 채점한다. 1차 봉기는 관리의 횡포와 폐정, 2차 봉기는 일본의 침략이 대표 단서이다. 1차 봉기에 반외세 성격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질문 Q07·Q09

3. 자주 국가의 모색

16 정답 ①

① 정답 **공개 집회와 의견 발표에서 민중의 참여와 자주 의식이 드러난다.**

② 오답 대한국 국제와 황제권 강화에 해당한다.

③ 오답 갑오개혁 초기의 추진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오답 동학 농민 운동의 활동이다.

⑤ 오답 갑신정변의 방식이다.

관련 질문 Q13

17 정답 ③

① 오답 고종은 1897년 황제로 즉위했다.

② 오답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 초기의 기구이다.

③ 정답 **대한 제국 수립과 대한국 국제 반포를 통해 황제권을 강화했다.**

④ 오답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권한을 집중했다.

⑤ 오답 집강소는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 기구이다.

관련 질문 Q14

18 정답 ⑤

① 오답 갑오개혁 초기의 내용이다.
② 오답 동학 농민 운동의 활동이다.
③ 오답 독립 협회와 관민 공동회의 활동이다.
④ 오답 을미개혁의 내용이다.
⑤ 정답 **구본신참 원칙에 따라 황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했다.**

관련 질문 Q15

19 정답 ②

① 오답 양무운동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서양 기술 등을 받아들이려 했다.
② 정답 **막부 붕괴 뒤 국왕 중심의 근대적 개혁이 추진되었다.**
③ 오답 신해혁명 뒤 중화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④ 오답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막부가 무너졌다.
⑤ 오답 변법자강 운동은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다.

관련 질문 Q17

20 정답 지계

광무개혁의 토지 소유 증명 문서는 지계이다. 양전은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문서의 이름과 다르다.

관련 질문 Q15

21 정답 헌의 6조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했다. 집회 명칭이 아니라 결의한 조항의 이름을 묻는다.

관련 질문 Q13

22 정답 (나) → (가) → (다) → (라)

임오군란(1882) → 갑신정변(1884) → 갑오개혁(1894) → 아관 파천(1896)의 순서이다. 사건의 이름이 비슷해도 배경과 연도가 다르다.

관련 질문 Q05·Q06·Q10·Q12

4. 국권 수호

23 정답 ④

① 오답 을사늑약의 핵심은 외교권 박탈이다.
② 오답 강화도 조약은 1876년, 고종 강제 퇴위는 1907년이다.
③ 오답 을사늑약은 1905년으로 강제 병합보다 앞선다.
④ 정답 **국권은 여러 단계에 걸쳐 빼앗겼다.**
⑤ 오답 외교권·군대·사법권·경찰권 등 여러 권한이 단계적으로 침탈되었다.

관련 질문 Q18·Q19

24 정답 ①

① 정답 **두 운동의 공통 목표와 서로 다른 대표 방식을 바르게 비교했다.**
② 오답 의병의 대표 방식은 무장 투쟁이고 애국계몽 운동은 교육을 중시했다.
③ 오답 두 운동 모두 국권을 지키려 했다.
④ 오답 평민 의병장과 농민, 해산 군인 등이 참여했다.
⑤ 오답 신민회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와 독립군 양성 준비를 추진했다.

관련 질문 Q20·Q21

25 정답 ③

① 오답 1900년은 1905년보다 앞이다.

② 오답 태정관 지령은 일본의 최고 기관이 1877년에 내렸다.

③ 정답 **1900년 칙령 제41호는 1905년보다 앞선다.**

④ 오답 일방적 선언을 이전의 정당한 영유 관계가 없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⑤ 오답 일본의 불법 편입은 러일 전쟁 중 침략 과정과 연결된다.

관련 질문 Q23

26 정답 국채 보상 운동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줄이고 국권을 지키려 한 자발적 모금 운동이다.

관련 질문 Q22

27 정답 O

특사 파견은 강제로 빼앗긴 외교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시도였다.

관련 질문 Q19

28 정답 X

일부 의병의 국외 이동, 교육·언론 활동, 신민회의 국외 기지 건설 준비 등이 이후 독립운동의 기반으로 이어졌다.

관련 질문 Q24

29 정답 **훈련과 전투 경험을 가진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여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필수 요소: 군인의 훈련·전투 경험 → 의병의 전투력 강화. 조직력 강화까지 덧붙여도 맞지만 군대가 해산되어 저항이 전부 끝났다는 답은 틀리다.

관련 질문 Q19·Q20

30 정답 **교육으로 인재를 기르고 산업을 통해 경제력을 키워 국권을 지킬 힘을 마련하려 했다.**

필수 요소: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 산업을 통한 경제력 강화 + 국권 수호와 연결. “외국의 지배를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틀리다.

관련 질문 Q21